

# 120년의 원력으로 온 중생 귀의처 되살리다

## 미항사 중창불사 괘불재·음악회로 회향

1887년 남해 청산도 앞바다에서 해남 미항사 불사 회향에 나선던 풍물패 40여명이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 사고로 미항사는 폐사에 가까게 100여 년 방치됐다. 100년 후 지운 스님(미항사 선덕)과 현공 스님(현 미항사 회주)의 미항사 주지 부임 후 20여 년 간 노력 끝에 2008년 10월 대규모 중창불사를 회향했다. 120년만의 중창불사 회향이었다.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은 10월 18일 '천년의 꿈 120년의 원'을 주제로 미항사 중창불사 회향 기념 괘불재 및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괘불이온, 만물공양, 통천, 중창불사 회향식, 법어, 두레상 한술밥, 괘불봉안, 가을산책 등 순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보선 스님(대흥사 회주),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 김홍식 해남군

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보선 스님은 법어에서 "모든 불사의 회향은 본래 마음인 부처의 마음으로 회향하는 것"이라며, "중생의 삶이 힘들 때 부처의 마음으로 회향하는 귀의처가 미항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이 참여해 각자의 원을 담은 추수 물품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만물공양도 눈길을 끌었다. 만물공양에 참여한 운산하 어린이(송지초 서정분교 6학년)는 "학교 텃밭에서 모든 아이들이 힘을 모아 가꾼 쌀을 부처님께 올리러 왔다"며 전교생 60여명이 함께 가꾼 쌀을 부처님께 공양했다.

괘불재에 이어 진행된 작은음악회는 인도예술가 박양희씨 사회로 인

도음악과 중창불사사시에 시인 김경운씨, 판소리, 심진 스님의 산사의 노래, 청산도 바다노래, 미항사 군고단의 연주 등이 진행돼 대중들의 흥을 더했다.

미항사 중창불사는 건물불사와 함께 각 전각에 대한 실측조사와 수리 보고서 등을 작성해 체계적인 복원불사의 귀감으로 평가받는다. 미항사 중창불사는 1989년 지운 스님(미항사 선덕)이 퇴락한 사찰의 도량을 넓히면서 시작했다. 1992년 현공 스님(미항사 회주) 주지 취임 후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돼 전각 5동과 수련원을 포함한 요소공간 11동이 복원되고 석축 및 진입로 등이 정비됐다.

1993년 처음 시작해 올해 9회째 맞는 미항사 괘불재는 한국의 대표 문화행사다. 미항사는 매년 열리



해남 미항사에서 10월 18일 '천년의 꿈 120년의 원'을 주제로 봉행된 중창불사 회향 기념 괘불재.

는 작은음악회와 어린이 한문학당, 문화학교, 참선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 땅끝문화재 등 많은 문화 프

로그램 등을 운영해 문화사찰로 대중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우리지역 부부나눔자

전주 금선암 덕산 스님

## '부처님 근본으로 돌아가기'로 전법

햇살이 고운 가을날 오후 전주 시민들의 안식처이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인 모악산 중턱에 자리한 금선암에서 덕산 스님(사진)을 만났다.

금선암은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덕산 스님 선친인 금화당 초안 스님이 암자를 중수해 수행하다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다시 수차례 중창불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초안 스님과 덕산 스님은 2대에 걸쳐 극락보전, 삼성각, 무구전, 열불당 중창불사를 회향해 조계종 금산사 말사로 등록했다.

금선암 법회는 삼귀의와 오

계를 불자들이 다함께 낭독하면서 시작해 석가모니 부처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기로 유명하다.

생전에 어려운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즐기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발원했던 초안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덕산 스님은 1996년 '금화장학회'를 설립했다. 금화장학회는 한반 장학수혜자로 선정된 학생이 고교 졸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주시와 함께 '금화효행상'을 제정해 지역의 효자·효부들에게 매년 500만원씩 상금을 지급하고, 경로잔치 등을 통해 독거노인을 돕고 지역민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왔다.

덕산 스님은 1999년 금산사 개산 1400주년을 기념해 금선암 미륵향도 300명과 함께 심포항 갯벌에 향목(香木)을 묻는 행사도 개최했다. 현재의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고 나아가 모든 인연 있는 이들에게 심선행을 권하며 다함께 윤회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행하는 '미륵 향도 4대 실천

강령'을 제정한 스님은 심선회와 수월회 등 신도조직을 활용해 미륵심선실천운동도 펼치는 중이다.

스님은 포교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봄에는 '솔바람 꽃향기 음악회'를 개최해 모악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봄내음이 물씬한 화전과 산채 비빔밥을 제공하며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계절별로 '모악의 풍안에서 행복할 명상'이라는 주제로 불교명상학교를 개최해 각박한 현대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한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청량감을

선사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전주시 완산경찰서 경승실장을 맡아 경찰포교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한 덕산 스님은 10월 21일 경찰의 날에는 완산경찰서장에 감사패를 받았다.

덕산 스님은 은사 도영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을 도와 '금산사 복지원' 태동에 많은 역할을 했다. 현대도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시설인 '송광사 정심원'의 상임이사로서 맡아 복지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스님은 전북지역 불교 선학단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수행활동을 하는 점을 감안해 지역불자들이 내부적인 자생력을 키울 연법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덕산 스님은 "전북지역 불자들이 체계적인 수행활동과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선암을 너그러워 포근한 도량, 행복을 널리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덕산 스님의 뒷모습에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화엄사 '통일쌀' 북 전달 예정

### 5000만원 상당 수확

결실의 계절 가을, 북녘의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기 위한 통일쌀 베타기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은 10월 20일 구례군 상사마을 소유농지 2만여 평에서 화엄사 대중스님 50여명을 비롯해 구례군농민회, 기자기자장광주공작조합원, 조선대 학생들 200여명과 함께 '통일쌀 짓기사업'을 펼쳐 약 5000만원 상당의 쌀을 수확했다.

벼베기에 앞서 진행된 인사말에서 종사 스님(화엄사 총무)은 "통일쌀을 수확해 북녘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은 동포애의 표현이며, '중생이 아프



구례 화엄사 대중스님들이 통일벼 수확에 헌정한다.

면 보살이 아프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동찬 단체들과 함께 4200만원 상당의 쌀을 북측에 전달한 화엄사는 올해도 수확된 쌀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익산불교신도련 '자비의 연탄 나누기'

익산지역 불자들의 모임인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는 10월 19일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가정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벌였다.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 회원

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 60여명은 김재웅 前 국회의원, 정광운 교육장 등 각급 기관장들과 함께 이날 547구에 총 1만8000장의 연탄(약 500만원 상당)을 배달했다. 도움을 받은 이웃들은 불자들의 자비행에 감사를 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사회통합에 불자가 앞장 서자"

### 김제 금산사 1409주년 개산대제

김제 금산사(회주 월주, 주지 원행)는 10월 18일 1409주년 개산대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대적광전 앞에서 열린 개산대제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선운사 법만 스님, 대흥사 월우 스님, 도갑사 월우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본말사 60여명의 주지 스님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희수 도의회 의장, 최규성 국회의원, 이건식 김제시장, 송하진 전주시장, 김백호 전북 신도회장, 김진수 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축원, 금산사 연혁, 금산사 역대 조사스님들의 행장소개로 이어졌다.

월주 스님은 법어에서 "사부대중은 열심히 수행 정진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중생세계에 나서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자"며, "사회통합 노력에 불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김제 금산사의 1409주년 개산대제.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백제법왕 원년(599) 진표 율사에 의해 산문이 열린 이래 1409년의 유구한 세월 속에서 금산사는 백성들의 귀의처였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 외침과 맞서며 대중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제불보살님들의 정법을 받들어 수행과 전법교화, 가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보살계 수계법회에서는 3000여 불자들이 보살계를 수지하고 불보살의 대비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화두(話頭) 이야기

고목 지음  
도서출판 밀양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 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말법의 온갖 허물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간의 향상을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릿글 중에서 -

## 고목스님의 책들

### 新 유식학(보정판)

삼라만상이 오직 식(識)일 뿐이어서 마음을 알면 자연히 세계를 알게 된다.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명상, 그 푸른 논의 지혜

명상의 기본원리와 비바사나, 요가명상 등 실용성 높은 생활명상법 수록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禪.....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가?  
고 목 지음

### 금강경 최상승해(근간)

차별화된 최상승의 해설. 현대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영원한 진리의 보고(寶庫)  
고 목 지음